

전북경찰, 학교주변 풍속업소 '철퇴'

전북경찰이 신하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단속,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철퇴를 맞았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새하기를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학교 주변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단속, 학교 주변 불법 성매매업소와 사행성게임장 등 44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적발된 학교 주변 풍속업소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13곳, 노래방과 유흥주점 12곳, 사행성 게임장 4곳 등이다.

특히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으로 전주에서는 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곳

불법 성매매업소 등 44곳 적발 73명 불구속

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배모(59)씨와 익산에서는 학교 밖 150m 거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32)씨 등 총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에서 적발된 권모(66·여)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학교에서 100m 떨어진 건물에서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 1회당 7만원을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송모(64)씨는 지난 1월부터 전주

시내 한 학교 인근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와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반 시 업소 폐쇄 등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강력한 사후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시 형사처벌

하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토지)주에 대해서는 업소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업장부를 확보해 불법 영업 이익금을 특정 세무서에 통보하고 기소 전 물수보전 및 업소폐쇄 등을 통한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사행성 게임장과 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해 어린 학생들을 범죄의 유혹에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장수서 이웃집 텃 50대 '달미'

장수경찰서는 23일 이웃집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 1일께 장수군 한 마을에서 B(80)씨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스테인레스 싱크대(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까지 이웃집을 상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을주민들이 다 아는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다"며 "특별한 목적 없이 물품들을 훔쳐 집에 둔 것으로 주민들이 경고 차원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아름다운 우리 별

세계기상의 날인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3천원 '지구 온(ON)'을 통해 지구온난화, 지진 상황 등 기상, 기후 변화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범상 운전지폭행 등)로 기소된 유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저녁 전주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A(52)씨의 택시에 무작정승한 뒤 의자에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는 A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 A씨가 행선지를 묻자 심한 욕설을 퍼붓고 침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는커녕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경찰, 불법선거사범 880명 적발 금품향응보다 흑색선전 많아

경찰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불법선거사범 880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예정됐고 3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전 경찰력을 동원해 '3단계 단속체계'를 가동, 총력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선거사범 중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7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2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비방 등 '흑색

선전'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금품향응(139명, 16%), 사전 선거운동(102명, 12%), 인쇄물 배부(91명, 10%), 선거폭력(15명, 2%) 등이 뒤따랐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단속인원은 줄었으나 당내 경선 등 후보자 확정 과정에서 고소·고발건이 늘어 형사 입건자수가 119명(46.5%) 증가했다.

또 당시 최대 수준이었던 금품향응보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가 2배 가량 늘어났다.

19대 선거 당시에는 전체 933명 중 금품향응이 224명으로 전체의 24% 구

모였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159명, 17% 수준이었다.

경찰은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돈선거 행위는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지역언론 기사를 매수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는 등 돈선거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흑색선전 행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문자·마시 음성형 유언버여 유포 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흑색선전도 과거에는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카페·블로그, 페이스북·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이 대부분이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달 30일까지 설명회 진행

전주시가 학비부담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대학교를 직접 찾아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전주시 관내 대학교의 학생관리 부서 담당 과 총학생회, 대학생 등 사업 실수혜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한다. 또 학생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인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은 전주시가 아낌하게 추진하는 청년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전국 어느 대학에 다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부무과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시행 첫해로 1인당 지원 금액이 소액이어서 대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참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 교육부무과(063-281-53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지역MBC 자율성 보장하라"

전국언론노조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촉구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역MBC의 자율성보장과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지역별로 기자회견(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을 갖고 MBC 사측에 지역MBC의 자율성 보장과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MBC 대주주인 (주)MBC가 지난 3월 2일과 3일 열린 지역MBC 주주총회에서 대구안동·포항MBC와 광주·목포·여수MBC에 분사 간부 출신의 공동사무를 각각 선임한 것은 지역MBC에 대한 본사의 장악력을 강화해

지역MBC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MBC 경영진이 내세운 "지역MBC 광역화의 효율적 추진과 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선도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지역성과 배치되는 일방적 지역사 통합 추진을 위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MBC의 자율성 훼손은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문화 발전 등 지역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MBC 자율성 보장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이시카와현 간호대학생 전주 방문

시 건강증진정책 벤치마킹

일본 이시카와현 간호대학 학생들이 전주시의 건강증진 우수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

일본 가나자와 의과대학 등 이시카와현 내 4개 대학 학생연합과 교수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시카와현 간호대학 연합 연수단은 지난 22일 전주시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반적인 체계와 운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

연수단은 이날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으로 부터 전주시의 보건정책과 보건 의료현황 및 운영체계,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건강증진센터와 금연클리닉, 뱃살프로

그램 등 보건소 내 시설들을 관심있게 둘러봤다.

특히 연수단은 우리나라의 높은 건강검진율과 치매관리사업,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전주시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들과 보건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양극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스까다 히사에 교수는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많은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 놀랐다"며 "일본에 돌아가면 치매정책,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의 정책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십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케팅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협회 대표
- 스피치 리더십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설팅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케팅이벤트',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